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4만명 추정

국내 고립·은둔 청소년(13~18세) 약 14만명 추정 학교폭력, 입시경쟁 등으로 은둔·고립 청소년 증가 청소년기 고립·은둔 문제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부모가 지지하고 편이 돼줘야 장기화 막을 수 있어

사회와 단절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의 일본어)'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명으로 추정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립·은둔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13~18세 사이 고립·은둔 청소년이 약 1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둔·고립 청소년은 성인이 돼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10대 때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 시작했다.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학업 지원, 상담 등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4만여개의 편의점과도 연대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에 나섰다. 오는 5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청소년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철경 지열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청소년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청년기 때보다 해결하기가 쉽다"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굴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이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립·은둔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등 온라인상 집단괴롭힘의 심화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을 꼽았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한 것도 이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기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는 "고립·은둔이 청년이 겪는 문제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시작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을 하고 은둔생활에 들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갔다온 이후, 어떤 아이들은 구직에 실패하면서 은둔의 길로 들어선다"며 "부모들은 이런 문제가 청년기에 갑자기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가 시작된 시기는 대부분 청소년기"라고 분석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굴이 중요한 이유다.

그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로 청소년기부터 고립감 등 어려움을 겪다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계기로 사회와 단절하고 숨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윤 이사는 이런 은둔·고립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왕따나 괴롭힘 등을 당하는 아이들은 버티다 버티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부모

들은 이때가 되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이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패닉에 빠지거나, 아이를 탓하고 심하면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사회에서 고통을 당한 아이들이 집에서 대화도 되지 않으니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하고 결국 은둔·고립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다.

하지만 윤 이사는 이런 문제가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행운이라고 했다. 문제가 청년기에 드러나면 은둔 기간이 장기화하고 부모가 개입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하면 아이를 탓하지 말고 무조건 아이의 편이 되라"고 조언했다. 또 "힘들다고 하면 그 마음을 보살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라는 등 아이를 나무라면 안된다. 어떤 점이 억울한지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경쟁적인 교육환경도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공부, 성적 등 성취지향적인 부모와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며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무너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이런 다양한 문제로 고립·은둔의 길로 들어서려는 아이들에게는 공부 등 학업적인 성취를 강조하지 말고, 자기주도적으로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 뿐 아니라 학교도 은둔·고립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이사는 "고립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자주 결석이나 지각을 하고 무기력해 보인다. 학교에 와도 친구가 없으니까 오기가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지쳐서 학교를 떠나기 전에 발굴해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면기자



순천 서면파출소, 민·관·경 합동순찰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일) 서면파출소(소장 위승근)에서는 최근 서면주민자치회, 서면행정복지센터, 서면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화순경찰, 주민참여치안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지난 21일 주민참여 공동체-플랫폼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순군 생활지도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정성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경찰, 불법 촬영 근절 위한 민·경 합동 점검 전개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지난 21일 민·관·경 약 25명이 합동하여 전파탐지 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합동점검과 자체 제작한 리플릿 및 불법촬영탐지카드 배부 등 합동 순찰을 병행했다.

무안=이성기기자



고흥경찰, '찾아가는 고흥경찰' 마을 이장단 홍보 활동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지난 20일 고흥군 점암면 이장단을 찾아 범죄예방 대응과, 수사과, 교통과 합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1일 이영호 완도해경서장과 정관영 정책자문위원장 등 25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승준표 기자



광주 동부소방, 대단지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21일 계림아파트SK뷰(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67.9% "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5인 미만 67.9%, 300인 이상 16.1%...격차 커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 질의하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라고 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사업주 가족이 아닌 분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돈으로 주지도 않고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 2023년 한 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엘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 휴가 사용 개수가 6일 미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37.8%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순이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16.1%로,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p(포인트)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진행한 2022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설문조사에서는 6일 미만 사용 응답률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32.3%였다. 지난해 두 집단의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격차는 29.8%p로, 1년 새 격차가 1.7배가량 커진 것이다.

또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34.5%)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히 사용은 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4.7%는 '유급 연차휴가를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3.1%)의 10배 이상이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 근무한 지 3개월이 좀 넘었다. 그 사이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는 지시를 12번 받았다. 한 번도 제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본 적 없고 모두 강제였다"며 "그런데 회사에서는 12번 중 3일은 제 연차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족 행사로 이틀을 쉬어야 하는데 회사가 강제로 쉬게 한 일 때문에 남은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사장이 개인 사유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범법 지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슬비기자



'봄꽃은 없지만, 거리로 나온 시민들'

하고 있다.

호린 날씨를 보인 24일 오후 제주 도내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 일원을 찾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봄기운을 만끽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경찰에 체포

50대 남성 입건해 조사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를 지나다 택시 안에서 50대 남성 택시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B씨가 차를 세웠으나 A씨는 길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B씨와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